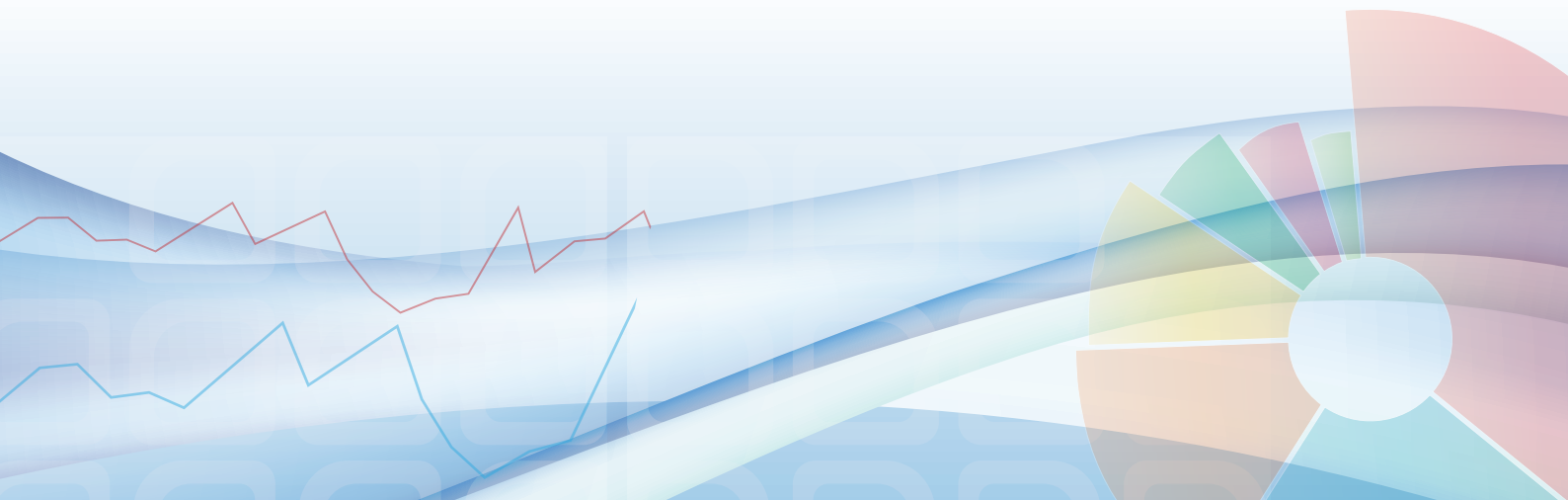


2012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이원자 편역

일본국제교류기금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 본 조사연구는 일본국제교류기금이 실시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일본연구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의 일환입니다.

본 조사연구는 일본국제교류기금과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의 공동조사연구에 의한 것이며,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진창수 소장이 총괄하였습니다.

본 조사연구는 2005년 이후의 한국에서의 일본연구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단, 분야에 따라 그 조사대상의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05년 이전의 연구조사는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진창수 역음, 2007, 한울아카데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집필자 |

- **진창수** _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소장, 책임연구자
- **이면우** _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도형** _ 동서대학교 객원교수
- **윤병남** _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일본문화전공교수
- **최 관** _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교수
- **최재철** _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대학 일본학부교수
- **이강민** _ 한양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부교수
- **한영혜** _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교수

제1장 한국에서 일본연구: 다양화와 전문화의 딜레마

진 창 수 (세종연구소)

1. 서론: 인문학적 취미에서 전문화로

본 연구는 일본 연구자와 기관의 통계 분석과 연구 분야별 쟁점의 변화를 분석하여 한국의 일본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의 일본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1)연구자의 학문적인 영역, 2) 연령대, 3)충원 시기, 4) 학위 취득 국가, 5) 기관의 설립시기와 분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¹⁾. 본고는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의 2012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일본연구를 평가하고자 한다.

한국 일본연구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전후부터 1980년까지의 일본연구는 인문학적인 지식에 의거한 특수론적이고 인상론적인 분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넓은 의미에서 일본에 대한 관심과 탐구는 대학 이외의 저널리즘이나 재야학자, 작가 등에서도 수행되어 왔지만, 한국의 역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일본제국주의 비판이나 순수한 일본어, 일본문학을 제외하고는 일본 자체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기피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청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였기 때문에 전후부터 1980년까지는 일본 자체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움직임은 현실적인 제약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함에 따라 학계와 매스컴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다. 즉 민간의 활발한 교류, 기업간의 협력, 그리고 일본의 경제성장에 따른 한국 내 일본 수요의 증가 등으로 실무적인 관심에서 일본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1980년대에는 한국 특유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일본의 경제성장의 성공사례를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게 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에는 서로 모순된 일본 인식이 표출되면서 일본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였다. 1980년대 일본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일본연구가 양적인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일반적인 일본에 대한 논의는 저널리즘에서 나타난 ‘일본은 있다’, ‘일본의 없다’의 논쟁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²⁾ 따라서 1980년대는 이전의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1)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는 일본연구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과 2012년에 1) 직접 설문 방법: 설문지 우편 발송, 질문지 전화 인터뷰, 연구기관의 방문조사, 2) 한국연구재단의 데이터베이스 자료 분석: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업적통합정보에 등록된 연구자들의 개인 프로필과 연구업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자수는 2005년에는 1019명, 2012년에는 1077명이었다. 본고에서는 2012년의 조사자료를 사용했다. 2012년 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사람은 169명, 한국연구재단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분석의 대상 수는 908명이며, 합계 1077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또한 2012년의 조사에서는 연구기관의 조사도 이루어졌다. 2005년의 조사는 진창수 편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한울아카데미, 2006), 2012년도 조사는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2012) 「2012년 조사자료: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해 주십시오.

탈피하여 일본을 긍정적인 인식까지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폭이 넓어진 시기였지만 여전히 일본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남아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일본에서 유학을 한 연구자들이 일본학계에 대거 유입됨으로써 일본연구가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였다. 1990년대는 이전보다 다양한 학문의 조류가 형성되어 일본 연구가 본격적으로 전문화 단계로 들어가는 시기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 한국의 일본연구는 이전의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한 특수론적인 일본 연구에서 벗어나서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영역으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학계에서도 일본이나 세계에서 인정받는 논문이나 연구성과물이 나타나면서 한국의 일본연구는 초창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일본 연구는 취미와 배척의 단계에서 이해의 단계를 거쳐 전문화의 단계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일본 연구는 1990년 이후 전문화의 단계로 변화되었지만, 현재 연구자의 연령 층이 50대와 60대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의 분포도 어문학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불균등한 발전을 하였다고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연구자의 양적 팽창은 제도적인 지원에 의해 형성된 부분이 많다는 것도 강조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한국의 일본 연구가 다양성과 전문화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은 한일관계의 갈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다든지, 어문학은 유학시기의 연구방법이 그대로 재생산되는 한국적인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2. 연구자와 기관의 동향 및 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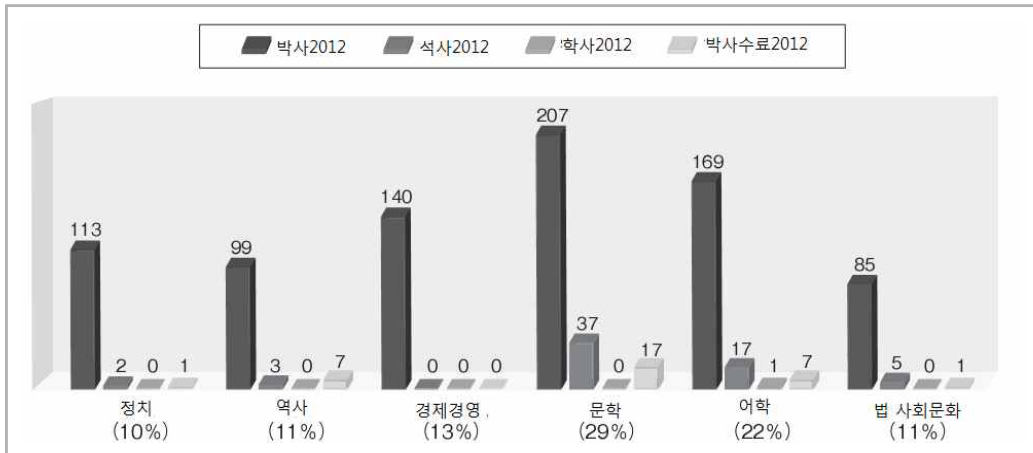
2.1. 연구자의 학문 분야별, 연령별 분포

연구자들의 분포를 <표 1-1>에서 보면 한국 교육 제도의 특성에 따라 문학과 어학에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 일본연구의 조사대상자 1077명 중에서 문학과 어학의 연구자는 548명을 차지하여 과반수 이상(51%)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일본연구자는 일본 관련 논문을 한편 이상 쓴 사람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연구재단에 개인연구자로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와 연구 논문의 정보를 비공개로 한 경우에는 일본연구자의 통계로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특히 어학과 문학의 특성상 박사 학위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석사와 박사수료만으로도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통계수치보다 더 많은 연구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최근까지도 한국의 대학 교육이 어문학을 중심으로 재생산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본은 있다’는 일본으로부터 배울 교훈이 있다는 의미. ‘일본은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는 일본이 선진국이 된 경과를 중시하여 긍정적인 일본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일본은 없다’는 일본으로부터 배울 교훈이 없다는 의미. ‘일본은 없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는 일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3) 표1-6의 데이터는 설문에 응한 사람이 169명, 한국연구재단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분석 908명의 합계 107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박사학위 취득자뿐만 아니라, 석사, 학사를 포함하고 있다. 단, 연구자 중에서 석사와 학사 취득자는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일본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표 1-1〉 일본 연구자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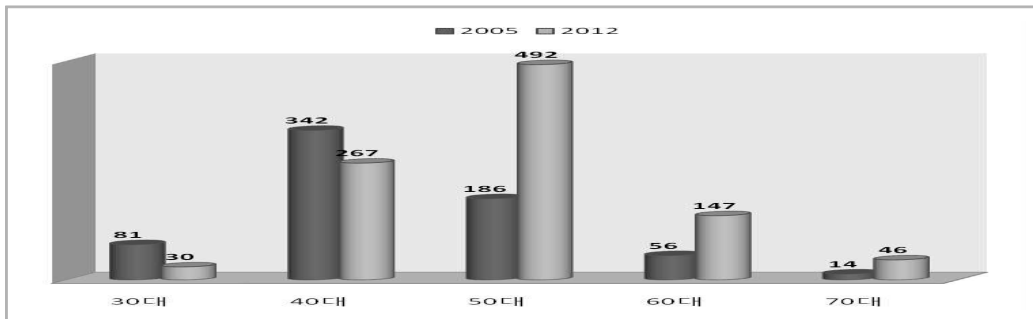


주) 2012년도 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사람이 169명, 한국연구재단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분석의 대상 수가 908명으로, 한계 1077명이 분석대상이 되고 있음.

출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2012) 『2012년 조사자료: 한국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일본연구자들의 연령대를 조사해보면 <표 1-2>에서 보는 것처럼 50대 연구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0대의 연구자는 2005년도의 조사에서 81명인 것에 비해 2012년도의 조사에서는 30명으로 줄어 들었다. 40대는 2005년도에는 342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267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30대와 40대의 연구자는 줄어들었는데 비해 50대 이후의 연구자는 늘어났다. 50대는 2005년도에 186명에서 49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리고 60대도 2005년도에 56명에서 147명으로 3배 정도 늘어났다. 70대도 2005년 14명에서 46명으로 3배 정도 늘어났다. 이는 한국의 일본연구자들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젊은 연구자들이 학계에 유입되지 않아 연구자의 숫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사회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함께 한국사회에서도 일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한국의 일본학계는 새로운 연구자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표 1-2〉 일본 연구자들의 연령대 분포



주) 2012년도 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사람이 169명, 한국연구재단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분석의 대상 수가 908명으로, 한계 1077명이 분석대상이 되고 있음.

출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2012) 『2012년 조사자료: 한국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2.2. 대학교육의 전공, 개설 시기, 일본인 교원의 수

한국의 일본연구자 배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 대학에서 일본연구와 관련된 전공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시기에 개설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일본연구와 관련된 학과와 전공은 <표 I-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주로 어학과 문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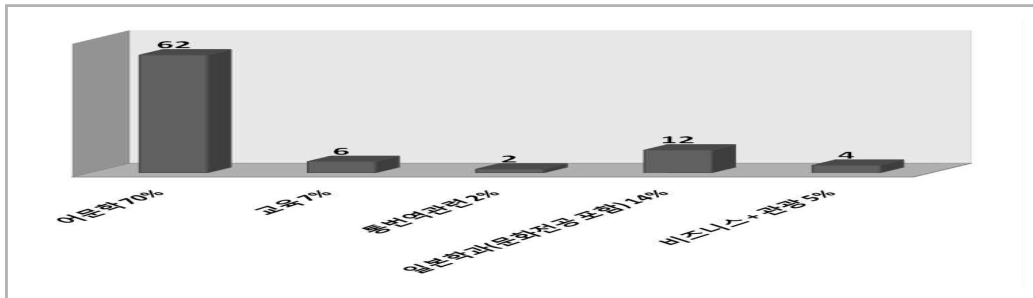
대학의 관련학과 개설시기를 살펴보면 70년대 이전부터 어문학 관련학과가 개설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는 비약적으로 어문학 관련학과가 개설되었다. 1980년대 일본이 경제대국으로써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일본의 다양한 대중문화가 한국에 급속히 전파됨에 따라 한국사회 내에서도 일본 사회나 문화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되었다. 대학사회는 일본어와 문학관련 학과를 개설함으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적인 전문화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채 많은 대학들이 사회과학적 관심과는 상관없는 일본어와 문학을 중심으로 인문학적인 학과를 개설한 것이다. 일어일문학과와 교과목은 4년간 전체를 통해 어학과 문학을 기본으로 짜여져 있으며, 일본 경제 혹은 정치 등은 부수적 교양으로 일본사회 음미를 위한 조미료 역할에 그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의 대학이 처음부터 일본에 관련된 수요를 주로 어학과 문학이라는 인문학적인 학문 전통에서 대응한 것에 유래한다. 따라서 한국의 일본 연구와 관련된 교육은 주로 어문학을 중심으로 재생산되는 구조가 1980년대부터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한국 내에서 일본 경제와 정치, 사회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대학의 학과도 이러한 유행에 따른 일본학과를 개설하게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교육에서 어문학 계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의 일본학과도 기존의 일어일문학과가 단지 명칭만을 바꾼 경우가 많았고, 새롭게 일본학과를 형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일본 경제와 정치와 함께 어학과 문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학과 설치의 효시는 1979년의 계명대학에서 시작되었지만, 계명대 일본학과 이후로는 한동안 신설 일본학과가 없다가 1990년대에 급격히 증가되었다. 예를 들면 강릉대(1996년), 대전대(1997년), 방송대(1997년), 배재대(1993년), 한림대(1992년), 한신대(1995년)등이 신생학과로서 개설되었다. 1990년대 당시에는 국제지역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국제대학원들이 지역연구의 교육(일본 지역 연구)을 표방하는 시기가 있었다⁴⁾. 결국 1990년대 국제대학원의 목표가 국제지역 전문가보다는 일반적으로 영어를 구사하면서 국제화된 인간을 육성하는 목표로 변화되면서 일본 교육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I-4>에서 보듯이 2000년 대에는 일본 관련 학과의 개설이 70년대 이전의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는 일본의 장기침체에 따른 일본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과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일본학과와 개설은 줄어들고, 일본에 대한 학과 신설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⁵⁾.

4) 사회과학분야와 인문분야와 같은 기초 사회과학이 당장 대학의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안된다는 근시안적 생각은 대학의 인사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학문의 후속세대 양성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 통상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적 하에 1997년도에 설립된 9개 국제대학원은 교원 충원에서 정치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는 사실상 배제되었으며, 경제학, 경영학전문가들이 대세를 이루게 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5) 4년제 대학의 경우, 학과명으로서 일반적으로 일어일문학과, 일본어과, 일본학과, 일본어문화학과(전공), 일어교육과, 일어일본학과, 일본어문학과 등의 명칭을 취하고 있으며, 2·3년제의 경우는 관광일어과, 일본어과, 관광통역과,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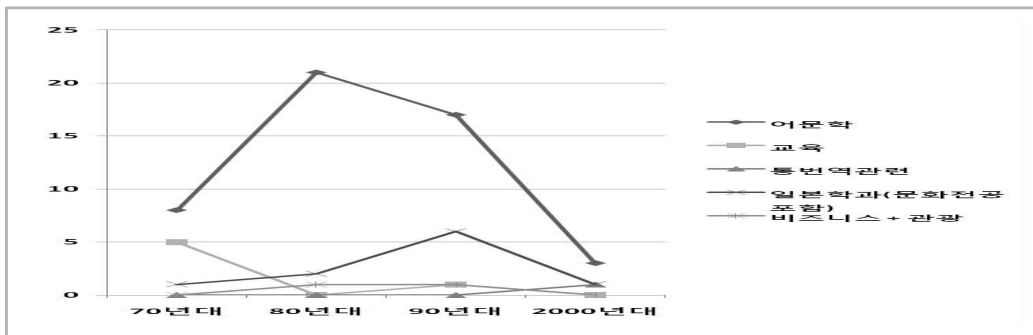
〈표 1-3〉 일본연구의 대학 전공 분포



주) 1)어문학: 일어전공, 일본어 전공, 일본어학과, 일본어어학부, 일어일본학과, 일본어문학과 포함 2)교육: 일어교육과, 3)통번역 관련: 일본어통역학과, 4)일본학과: 일어일본문화전공, 일본어일본문화학과, 일본학과, 등, 5)비즈니스, 관광: 관광일본어학과, 국제비즈니스어학부 일본어전공

출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2012) 『2012년 조사자료: 한국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표 1-4〉 일본연구 관련 대학의 학과 및 전공의 설립 연도



주) 일본학관련 폐과 혹은 통폐합된 학교는 계명대학교, 광운대학교, 대구대 교육대학원, 여수대학교, 천안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호원대학교 총 8개 학교이다.

출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2012) 『2012년 조사자료: 한국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80년대 이후 대학에서 일본관련 학과가 급속하게 증가되면서 흥미로운 점은 88개 대학의 일본학 관련 전임 강사급 이상의 교수진은 583명인데, 그 중에 일본인 교원은 157명으로 27%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 교원은 비테뉴어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주로 일본에 대한 교양 강좌나 어학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기초일본어나 교양일본어 과정을 담당하는 일본인 교원의 경우 연구 업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전부 전문 연구자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 국내에서 연구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일본인 교원의 수는 전체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40명 안팎으로 추정될 뿐이다.⁶⁾ 이를 보더라도 한국의 일본 교육이 얼마만큼 일본어와 교양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어통번역과, 호텔관광과, 산업일본어과, 국제통상일어과 등과 같이 일본어와 관광 및 통역을 연계시킨 학과명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의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이 전체 개설 대학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일본 연구는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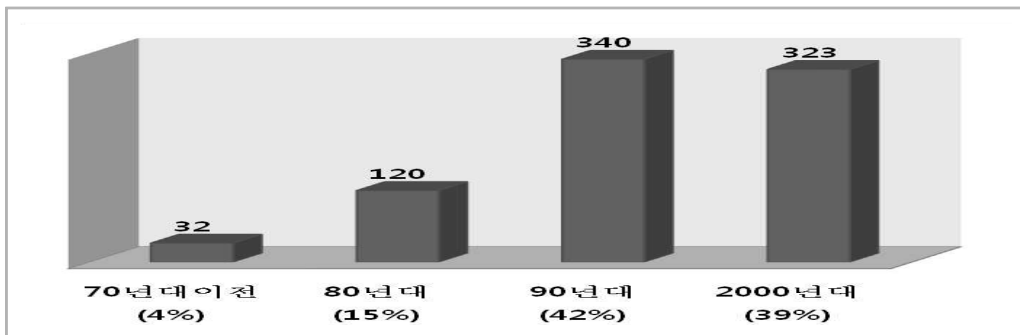
6) 이강민(2008) 「한국의 일본어연구(2005-2006)」 『일본학보』 제74집. P245.

2.3. 일본 연구자들의 총원 시기 및 학위 취득 국가

한국의 일본연구를 시기별로 구분해보면 3 단계로 분석할 수 있다. 제1단계는 1945년 해방 시기부터 1980년까지로서 연구의 맹아기이며, 제2단계의 1980년대는 일본연구의 기반 형성기이며, 제3단계는 1990년대 전반부터 현재까지로 연구자의 양적 팽창에 기초하여 질적 변화가 모색되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⁷⁾

여기에서 한국의 일본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를 분석해 보면 한국의 일본연구가 시기별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를 보면 1980년대의 박사학위의 취득 숫자는 120명으로 1970년대의 32명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1990년대의 양적 팽창을 생각하면 적은 규모라고 말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1980년대보다 3배 정도의 증가를 보였고, 일본연구자가 수적으로는 340명이라는 엄청난 규모로 팽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비추어 볼 때 1990년대 한국의 일본연구가 1980년대와는 달리 양적 팽창을 실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의 <표 1-2>에서 한국의 일본연구자들이 주로 50대에 집중된 이유이기도 하며, 1990년대에 일본관련 박사학위자가 많아진 것과 연동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0년대에는 일본학관련 박사학위 취득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일본연구자의 고령화와 관련있다.

<표 1-5> 박사학위 취득 연도



주)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자 중에서, 설문에 응한 연구자와 한국연구재단의 데이터베이스자료의 연구자를 합한 815명을 모집단으로 조사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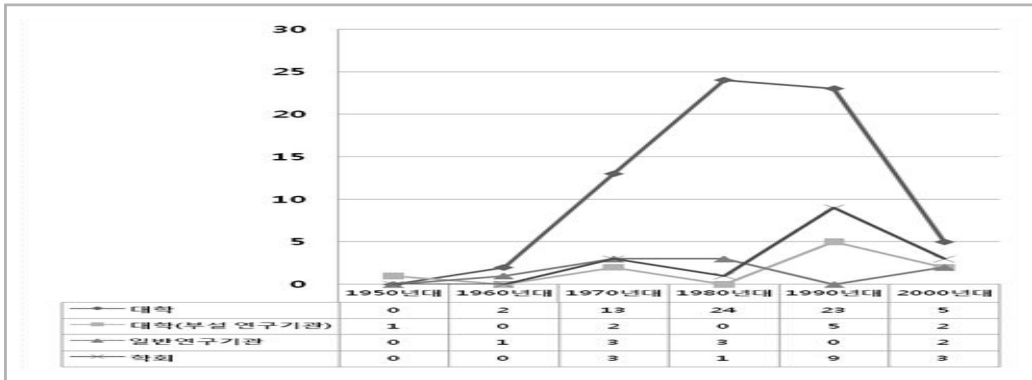
출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2012) 『2012년 조사자료: 한국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1990년대 연구자들의 양적 팽창은 그 당시 사회적인 요구와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다. 대학이나 일반연구기관, 학회의 신설시기를 살펴보면 연구자의 확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표 1-6>에서 보면 대학은 주로 1980년대에 일본관련 학과를 가장 많이 개설하였다. 이에 비해 학회는 1990년대에 많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연구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학회도 새롭게 신설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점에서 다음과 같은 연관고리를 논리적으로 추출해 볼 수 있다. 즉 1980년대에 일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예비 연구자들을 많이 배출하게 되었고, 이 결과 1990년대 연구자가 대량으로 배출된 것이었다. 이와 함께 90년대 연구자들의 양적 확대와 함께 연구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학회도 그 만큼 많이 신설되게 되었던 것이다.⁸⁾ 그러나 2000년대가 되면 일본에 대한 사회적 관심

7) 제3단계의 특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1990년대의 연구자가 현재도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 쇠퇴로 인해 연구자의 숫자도 줄어들고 학회의 설립 움직임도 둔화될 수 밖에 없었다. 학회의 신설이 줄어든 이유는 연구자가 줄었다는 이유 이외에도 1990년대에 학회가 난립되어 설립되었기 때문에 연구자의 활동공간은 이미 충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줄어든 것과 연구자가 감소한 점도 학회 신설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표 1-6〉 일본연구 관련 대학, 연구기관, 학회의 설립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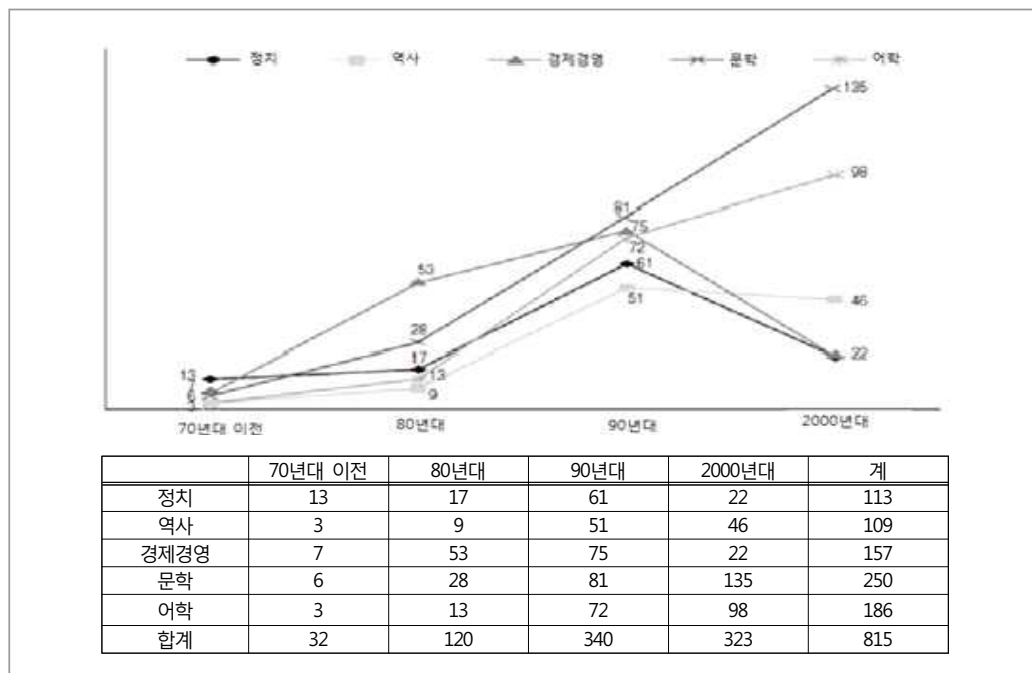
출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2012) 『2012년 조사자료: 한국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박사학위의 취득 시기를 살펴보면 분야별 특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정치학 분야에서는 1970년대에는 박사학위 취득자가 13명에 머물지만, 1980년대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17명이 되었다. 1990년대에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거의 3배에 가까운 61명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이는 정치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1990년대 박사학위 취득자가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양적인 팽창을 보였다. 다만 특이한 점은 경제 경영 분야는 1980년대에도 어문학과 비슷하게 박사학위취득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일본 경제 경영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다른 분야에 비해 한국사회에서 일본의 경제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박사학위 취득의 증감 현상에서 특이한 점은 어학과 문학 이외의 분야인 정치학이나 역사와 경제 경영학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박사학위를 받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줄어들면서 학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에 대한 관심이 저하됨에 따라 사회과학적 분야의 연구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표 1-7>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어학과 문학은 2000년대에 들어서도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서는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일본 어문학 관련 전공 학과가 급격히 증설되면서, 2000년대의 일본 어문학 관련 연구자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즉, 1990년대부터는 일본 어문학의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예비학생이 양산되어 학문의 재생산이 가능한 환경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8) 일본연구관련 총 30개 학회 중 90년대 설립된 7개의 학회는 어문학관련 학회 4개, 교육관련 1개, 역사관련 1개, 정치관련 1개이다. 이를 보더라도 어문학관련 연구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문학 관련 학회는 대한일어일문학회, 일본어문학회, 한국일본어학회, 한국일본문화학회, 교육관련 학회는 한국일어교육학회, 역사관련 학회는 일본사학회, 정치관련 학회는 동아시아 일본학회가 있다.

〈표 1-7〉 분야별 박사학위 취득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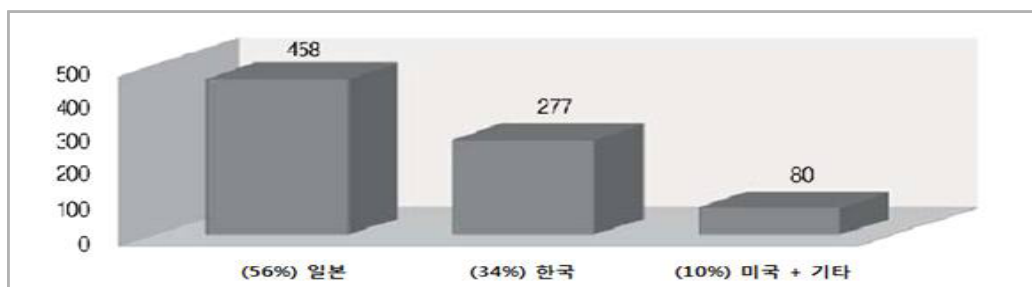


주)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자 중에서 설문에 응한 연구자와 한국연구재단의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연구자를 포함하여 815명을 모집단으로 조사한 수치.

출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2010) 『2012년 조사자료: 한국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의 일본연구자가 어느 국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지를 보면, 표8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가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비율 역시 약 34%에 다다르면서 한국에서 일본학 연구가 일본의 학문풍토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박사학위 취득 국가는 10% 미만으로 「한국에서의 일본학 연구자」 들은 평균 90% 가 일본과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있다.

〈표 1-8〉 박사학위 취득 국가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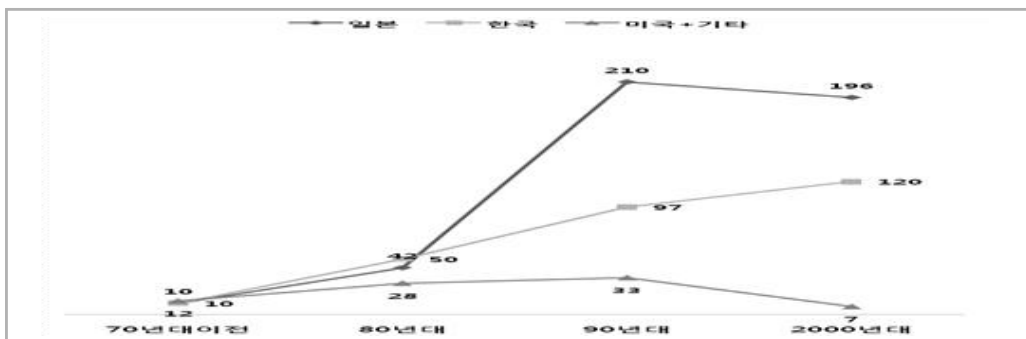


주)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자 중에서 설문에 응한 연구자와 한국연구재단의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연구자를 포함하여 815명을 모집단으로 조사한 수치.

출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2010) 『2012년 조사자료: 한국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표 I-9>에서 보면 70년대와 80년대에는 일본연구자들이 숫자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학도 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0년대에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학위를 받는 경우와 국내에서 박사학위 취득한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80년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을 제외한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대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였다. 그렇지만 90년대에 들어서면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가 80년대에 비해 5배로 증가하면서 압도적으로 일본 유학이 늘어나게 된다. 1990년대에 기타 국가에 비해 일본에서의 박사학위 취득자가 압도적으로 증가한 데 비해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연구자들은 80년대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났지만, 전체 연구자의 박사학위 취득자에서 볼 때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압도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90년대까지는 미국에서 일본학 연구를 주제로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도 조금씩 증가했지만, 한국과 일본의 총원 현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특이한 점은 일본으로의 유학은 정체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비율은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동시에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도 일본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는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표 I-9>에서 보면 80년대, 90년대에 적으나마 꾸준히 늘어났던 미국 및 기타지역의 연구자들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쇠퇴에 따른 한국내의 관심이 줄어든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I-9> 박사학위 취득 국가의 추이



주)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자 중에서, 설문에 응한 연구자와 한국연구재단의 데이터베이스자료의 연구자를 합한 815명을 모집단으로 조사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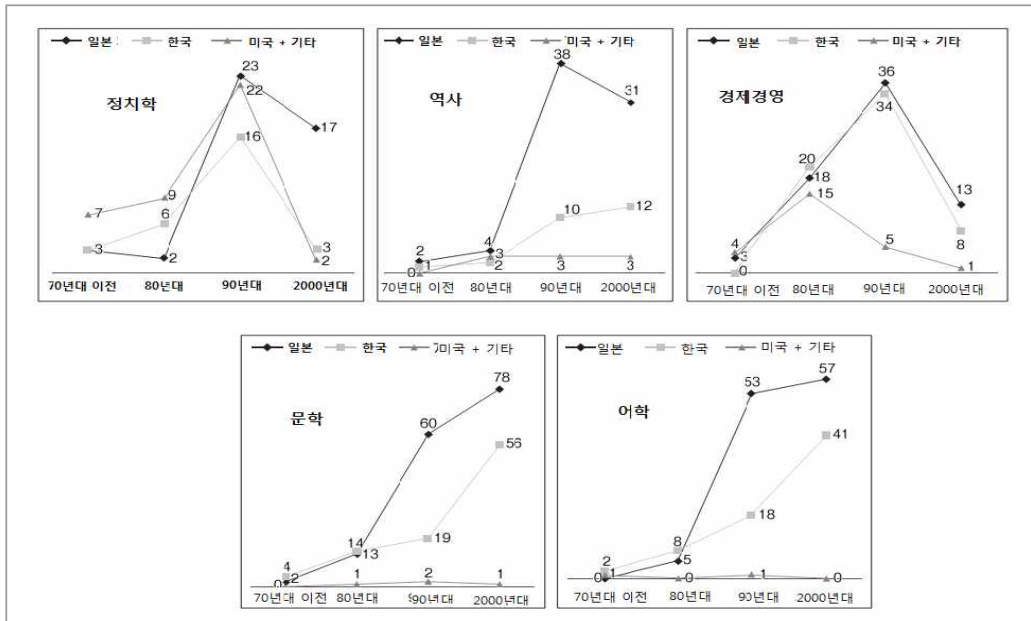
출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2012) 『2012년 조사자료: 한국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전공별 박사학위 취득 국가를 살펴보면(<표 I-10>참조) 다른 분야와는 달리 정치학 분야에서만 유독 한국보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가 많다는 점은 특이한 부분이다. 이에 비해 문학과 어학에서는 아직 미국 지역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연구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어문학 분야에서 일본 학위가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경영분야의 특징은 1980년대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가 많았던 경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80년대부터 일본경제모델 혹은 일본식 경영모델에 대해 한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어 경제경영분야에서의 사회적인 수요가 많았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 정치학과 경제경영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박사학위를 받은 숫자가 1/3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역사 분야는 2000년대에도 90년대와 비슷한 증감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어학과 문학은 90년대 연구자가 급속히 늘어남과 동시에 200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연구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연구자가 문학분야에서는 19명에서 56명으로 3배 정도가 늘어났으며, 어학분야는 18명에서 41명으로 2배 정도 늘어났다. 이는 한국 내의 일본학 전공이 어문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학 관련 지적 네트워크, 전문연구와 대학교육 기반이 구축되어 가고 있음을 반영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어문학 이외의 분야는 한국 사회의 취업 수요에 따라 학문 시장의 자연적인 조율이 기능하고 있는데 비해 어문학은 학문 시장의 조절 기능이 되지 않을 만큼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일본연구가 어문학에 편중되어 학문의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1-10〉 분야별 박사학위 취득 국가의 추이



주)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자 중에서, 설문에 응한 연구자와 한국연구재단의 데이터베이스자료의 연구자를 합한 815명을 모집단으로 조사한 수치임.

출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2012) 『2012년 조사자료: 한국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3. 연구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따른 한계

1990년대이후 한국의 일본연구는 양적으로 팽창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으로도 연구의 질적 비약이 모색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일본연구의 제도적인 환경 변화가 한국의 일본연구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제도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문 영역의 다양화’

1990년대의 연구자의 양적 팽창은 학문적 제도의 변화와 함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연구 영역 먼

에서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한국 대학 인사시스템의 변화, 연구기관의 확대, 그리고 연구지원의 확충이 이루어지면서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과 함께 경쟁 시스템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첫째 한국연구재단에서 도입한 연구의 경쟁시스템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사정책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본연구의 다양성과 전문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1998년 한국연구재단(당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학술잡지의 평가를 시작하면서부터 연구의 경쟁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자 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이 시도한 것은 학술지를 일반학술지, 등재후보지, 등재지,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로 분류하여 학술지에 대한 등급을 매겨 이를 연구자들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한 것이다. 즉 한국에서 최대의 학술지원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지 게재 논문 수로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학술연구의 경쟁 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결국 2000년 이후 한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 따른 학술지 게재 논문 수를 연구자들의 총월이나 인사 업적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연구재단이 시도한 경쟁시스템은 이제는 한국 학계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정착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학술지에 얼마만큼 논문을 게재 하였는지가 중요하게 되었고, 경쟁적으로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였다. 한편, 순위가 높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도 평가의 기준이 되어 제도적인 변화는 연구의 질적 향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예로, 각 대학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연구에서도 구미 각국의 SSCI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2000년 이후 일본 연구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은 연구 논문의 수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본연구도 일본을 비롯한 구미에도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연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윤병남 교수는 제도적인 변화로 2000년부터 일본사와 관련된 논문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논문의 주제도 다양성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⁹⁾. <표 1-11>을 보면, 2005년 이후 한국의 일본사 분야에서의 저서 수는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의 연구자 평가시스템이 저서보다 논문에 많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00년대 역사분야에서의 일본연구자의 총월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 게재수가 증가경향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자가 연구논문작성에 힘쓰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대학과 연구기관의

<표 1-11> 일본사 관련 논문 수와 저서 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통사		3	1	2	1	2	2	11
고대	6	18	9	19	30	19	22	123
중세	3	5	4	8	7	12	13	52
근세	16	20	18	35	24	48	47	208
근현대	61	44	55	89	86	127	121	583
1. 논문소개	86	90	87	153	148	210	140	914
2. 저서	28	13	18	25	18	31	20	153
(1+2)합계	114	103	105	178	166	241	160	1067

출처) 윤병남(2012) 「한국의 일본사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일어일문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2012년 일본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어학, 고전, 근현대문학, 역사』에서의 발표문(2012.06.15) p.2에서 인용.

9) 윤병남(2012) 「한국의 일본사 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일어일문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2012년 일본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어학, 고전, 근현대문학, 역사』에서의 발표문(2012.06.16.) pp2-6.

인사시스템 변화에 의해 연구자가 자신이 소속된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논문을 많이 양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윤병남교수는 논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연구 주제의 다양성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2000년대에는 소설과 역사를 비교, 문화와 역사의 관계 등 새로운 주제에 도전하는 연구자가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연구자들의 논문 게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학회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학회에서 다양한 학술지를 창간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학술지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학회간의 경쟁도 심해졌다¹⁰⁾.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일어일문학회와 한국일본학회를 들 수 있는데 그 회원은 약 1000명 정도이지만, 대부분의 회원은 중복되고 있다. 단지 두 학회가 지속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로서는 경쟁적으로 학회지 발간회수를 늘이면서 연구자의 욕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일본관련 학회가 각 지역 또는 연고를 중심으로 제각기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일본관련 학회지의 성격이 대개 일본어와 일본문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연구자가 여러 학회지에 비슷한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본관련 학회와 학술지의 난립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학술 주제의 상호 반복과 중복이라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¹¹⁾.

둘째 1980년대 이후 연구기관의 확대도 일본 연구의 양적인 팽창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일본 연구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하였다. 정치분야와 경제경영분야에서의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은 사회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형성되었고, 이 분야에서 연구를 특화시켜 나갔다.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과 국책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외교안보연구원(현재는 국립외교원) 및 정부관련단체(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등은 개인 연구자들이 할 수 없는 대규모 프로젝트와 새로운 아젠더의 발굴 및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즉 이들 기관들은 대학의 연구자와 대학의 부속 기관이 자체 연구인력과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만들 수 없었던 실시간 일본관련 정보와 기초자료를 제공했던 것이다. 또한 이들 연구기관들은 일본정치와 경제경영 연구에서 꼭 필요한 정책제안과 아젠더 발굴을 통하여 공동연구에 대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써 1990년대의 연구자의 팽창과 더불어 일본연구가 더욱더 다양해지고 전문화로 나아가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세종연구소는 일본정치에 대한 기초자료의 제공과 한일관계에 대한 정책 제언을 통하여 일본 정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또한 민간기업의 싱크탱크로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경제연구소는 일본기업이 직면한 급속한 고령화, 글로벌라이제이션 및 일본 국내정국의 변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최근에는 일본의 재정위기가 표면화 되지 않는 근거, 급속한 엔고 대응력 및 대지진 이후의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엔화 환율 변동분석은 기업전략 수립상 필수적이며 일본연구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¹²⁾ 또한 대외경제연구원(KIEP)은 주로 일본과의 대외 경제관

10) 예를 들면, 학술지의 사독심사(査読審査)를 엄격히 하여 학술지에 대한 평가를 높게 하려는 학회도 나왔다.

11) 최재철(2012) 「한국의 일본연구: 근현대문학」 한국일어일문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2012년 일본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어학, 고전, 근현대문학, 역사』에서의 발표문(2012.06.16) pp.2-3. 현재 일본관련 논문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과연 연구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있다.

계에 관련된 정보 분석과 기초연구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면 일본의 차세대 산업기술, FTA 및 EPA 전략, 중소기업간 제휴 등 특정 분야에서 각각 특화를 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 기관들은 어젠더 개발과 소개, 그리고 쟁점에 대한 문제를 환기시키면서 일본 연구가 더욱더 전문성을 가지도록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¹³⁾.

셋째 한국연구재단이 인문한국지원(HK사업: Humanities Korea Project)과 인문학분야를 장려하기 위한 연구지원사업의 확대와 한국과 동아시아사를 연구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출현으로 인해 일본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연구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다. <표 1-12>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연구재단은 일본 지역연구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조성하면서 일본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형성은 개인연구자들이 할 수 없는 공동연구와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일본연구를 더욱더 전문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동북아 역사재단의 형성으로 인해 많은 일본 연구자들이 한일관계의 정책적인 쟁점에 매달리는 한계는 있지만, 동북아역사재단 또한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한일관계의 정책연구와 역사연구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세계 다른 지역의 일본연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한국의 일본연구 성과가 다양해지고 전문화되었다는 것에는 부정할 수 없다.

<표 1-12> 각 대학의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 상황과 동북아역사재단

기관명	설립일	지원기관	수행 기간	사업내용	사업규모	연구자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1999.08.13	한국연구재단 HK 사업	2007.11 ~ 현재	인문학에 기반을 둔 종합적 일본연구	N/A	29
고려대학교 아시아재연구소	1957.06.17	한국연구재단 HK 사업	2008.11~2017.10	동북아시아의 초국가적 공간 - 사상, 사회문화, 제도의 교류와 재구성	100억원	26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2.09.16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2005.12.01~2008.11.30	한일회담 공개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	N/A	18
단국대 일본연구소	2002.10.28	한국연구재단 지원	2009.09~2012.08	일본근세회복의사국성과 역사인식	11억원	11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001.03.01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기관	2009.11.01~2010.10.31	개항기 이후 일본계 종교의 국내유입 유형과 조직화 과정 및 분포에 관한 조사	N/A	8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04.11	한국연구재단 HK 사업	2009.08.01 ~	HK 아젠다 <현대일본 생활 세계의 연구의 세계적 거점>	N/A	31
한림대학교 일본학 연구소	1994.03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2008.12.01 ~ 2014.11.30	제국일본의 문화권력 : 학지(學知)와 문화매체	N/A	16
동북아역사재단	2004	재단		동북아시아 고대사연구/이웃나라의 한국관 연구와 대응/ 독도에 관한 학제적 연구/ 동해 명칭의 국제적 확산/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동아시아상' 모색/ 한중일 공동의 역사인식 지원/ 시민사회의 교류와 협력 강화		40

주: 각 대학부설 연구소 및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인용하여 정리

각 분야별 전문화의 한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일본연구가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양적인 팽창을 하면서 연구의

- 2005년에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동경지소를 설립하여 동 연구소의 홈페이지를 일본어로 번역, 공개하고 있어 일본의 한국전문가는 물론 일본기업의 한국산업, 기업전략은 물론 정부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예산상의 문제로 삼성경제연구소의 동경지원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 그렇지만 이러한 기관들은 주로 단기정책연구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이고 학술적인 일본 연구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다.

영역이 더욱더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흐름은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전문영역의 다양화 추세 속에서도 한국적인 특성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치분야는 한일관계의 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경제경영분야는 일본을 따라잡기 위한 전략적인 주제에 집중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어문학도 유학시기의 연구방법론이 그대로 반복 재생산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정치학은 한일관계의 진전과 부침에 의해 연구동향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물론 사회과학적인 특성상 현실의 변화에 따라 쟁점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한일관계의 대립과 갈등이 학문 내에도 영향을 미치기 쉬워 연구 주제가 쉽게 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일본관련 정치학 분야의 쟁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1990년 이후 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에 게재된 일본 관련 논문을 분석해 보았다. <표 I-13>을 보면 일본연구의 일반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중반부터 논문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쟁점에 대한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2011년에는 예외적으로 많은 논문이 나왔지만, 대체적으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논문이 줄어들고 있다.

<표 I-13> 1990년 이후 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에서의 일본관련논문편수

연도	총논문 (편수)	일본관련논문(편수)							총계(%)
		한일관계	일본경제	대외관계	일본정치	비교정치	국제정치경제	사상	
1990	54	0	0	0	0	0	0	0	0(0)
1991	34	0	0	2	0	0	0	0	2(6)
1992	75	1	0	1	0	2	1	0	5(7)
1993	68	0	0	2	1	0	1	0	4(6)
1994	93	0	0	1	1	0	0	0	2(2)
1995	130	0	2	0	1	0	2	0	5(4)
1996	119	0	2	2	1	1	0	1	7(6)
1997	100	0	4	1	2	0	0	1	8(8)
1998	116	1	1	5	2	0	1	1	11(9)
1999	137	1	0	4	4	0	1	0	10(7)
2000	144	0	1	1	1	0	1	2	6(4)
2001	153	1	0	1	3	3	2	2	12(8)
2002	134	2	0	1	4	0	3	1	11(8)
2003	191	2	3	2	7	3	0	1	18(9)
2004	164	0	1	4	1	0	0	3	9(5)
2005	116	3	1	0	3	0	1	0	8(7)
2006	120	0	0	0	3	2	0	0	5(4)
2007	94	0	0	0	0	1	0	0	1(1)
2008	126	2	0	0	1	0	0	0	3(2)
2009	122	0	0	1	1	1	0	0	3(2)
2010	92	0	0	0	1	1	1	1	4(4)
2011	102	1	0	4	5	0	0	0	10(10)
총계	2484	14	15	32	42	14	14	13	144(6)

주: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학논쟁』에서 일본관련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

<표 I-1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치 분야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일본의 국내 정치와 관련된 논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1993년 이후 호소카와 내각의 연립정권이 형성되면서 일본의

연립정치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1년 이후 2003년까지 일본 국내정치에 대한 분석이 증가한 것은 고이즈미 정권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1년에 국내정치의 분석이 많은 것은 일본 정권 교체 이후의 민주당 정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일본 정치의 분석은 이전의 문화론적인 접근법과 달리 정치과정, 정치경제, 지방자치 등에 대한 분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더라도 관심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⁴⁾. 이것은 학자들의 수적인 충원에 따라 관심 영역의 다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일본 국내정치의 분석 이외에 정치학 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대외 관계와 관련된 논문이다. 대외관계에 관련된 논문은 핵 정책(원자력정책)과 북일 관계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본의 안보정책에 대한 논문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탈냉전이후 일본이 새로운 안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안보정책의 변화를 시도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학계에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보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일부의 논자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의식적 국방력의 강화(‘군사대국화’)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도 이전과는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가령 80년대 이전에는 일본의 안보정책에 대해 패권주의적 군사대국화(hegemonic military power)의 이미지로 묘사하곤 하였으나, 9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일본의 방위정책에 대한 이미지를 미일동맹하의 군사대국화 또는 미일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점차 연구의 방법론도 안보정책을 둘러싼 국내정치과정분석으로 옮겨가면서 군사대국화의 필연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전에는 한일관계의 갈등과 일본의 안보문제를 연결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던 반면에 최근에는 국내정치과정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한일관계와 관련된 논문들은 생각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한국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1990년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한일관계와 관련된 주제는 주로 한일협정, 과거사 청산, 그리고 경제관계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이들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¹⁵⁾.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시사적인 관심이 많은 영토문제(독도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단 하나의 논문도 없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 이유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독도문제가 현재만큼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 못했으며, 그와 더불어 학문적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2001년 고이즈미 총리의 등장 이후 한일관계에 관한 논문은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갈등에 집중하는 특징이 나타났다¹⁶⁾. 이는 한일관계의 쟁점이 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와 독도문제가 정치학계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일관계에 대한 논문들이 한일양국의 과거

14) 이면우(2012) 「한국의 일본연구: 정치학 분야」 한국일본연구단체 제1회 국제학술대회 『기획: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일본사회, 정치, 경제』의 발표문(2012.08.24) pp.13-15

15) 이것은 일본의 불충분한 과거청산의 태도와 과거 경험에 의한 한국인들의 대일경계론 등이 상호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16) 예를 들어 김영수, "한일회담과 독도 영유권" 『한국정치학회보』 42(4), 2008.12, pp. 113-130, 박창진, "독도 영유권문제를 둘러싼 한일갈등의 규범 확산" 『국제정치논총』 48(4), 2007.12, pp. 357-380을 들 수 있다.

사 문제에서 탈피하여 한일 교류의 측면이나, 새로운 한일관계의 변화를 분석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한국적 현실을 대변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윤병남 교수가 분석한 역사연구에서도 한일 관계에 대한 논문이 가장 많다는 점에서도 한국적 일본연구의 특성을 알 수 있다.<표 I-14>를 참조)

<표 I-14> 일본사 관련 6개 학술지의 시대별 논문 게재 수

학술지명	고대	중세	근세	근·현대	합계	한일관계사
일본역사연구	20	9	15	49	93	35
동양사학연구	2	2	6	11	21	5
역사학보	0	0	3	6	9	3
한일관계사연구	24	23	54	51	152	152
일본사상	6	1	15	9	31	12
한일민족문제연구	0	0	0	13	13	13
합계	52	35	93	139	319	220

출처: 윤병남(2012)의 발표문, p.5에서 인용.

둘째 경제경영 분야에서도 한국과 경제적인 연관성이 많은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김도형 교수에 의하면 경제경영의 연구분야를 추적하여 알아낸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내의 분석보다는 한국에 영향을 주는 주제에 많은 연구를 했다는 점이었다. 김교수는 2005~2011년간 국내 6개 주요 학술지에 등재된 총 260편을 35개 주제별로 나누어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일본기업시스템, 한일비교, 그리고 대외 통상 분야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¹⁷⁾. 그 이유는 한국의 경제경영 연구가 새로운 학문적인 지평을 여는 이론적인 작업에 몰두하기 보다는 일본을 따라 잡으려는(Catch-up) 전략적 차원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¹⁸⁾. <표 I-15>에서 보듯이 한국이 한일기업 비교나 일본 기업시스템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유는 일본의 장기불황이 시작되면서 90년대 중반 이후 지주회사의 解禁 논의와 함께 기존의 일본기업시스템이 서서히 변용되기 시작한 것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¹⁹⁾. 이는 지금까지 폐쇄적 일본시장의 실질적 개방 가능성에 대한 한국측의 기대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학계가 일본의 노사관계와 노무, 인사관리 등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근까지 노사간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한 한국이 일본형 노사관계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구체적인 노무인사관리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한일 FTA협상이 2004년 이후 중단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거시 경제적 영향을 제외한 산업(특히 부품소재 업종)별 영향에 관한 분석이 많은 것도 한일의 경제적인 쟁점이 학문분야의 관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가 진

17) 김도형(2012) 「국내의 일본경제, 경영 연구동향」 한국일본연구단체 제1회 국제학술대회 「기획: 한국의 일본연구: 일본사회, 정치, 경제」의 발표문(2012.08.24) pp.112-114.

18) 일본에 대한 분석은 구미 및 일본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던 인식을 그대로 가져와 한국 학계에서 반복되는 현상 मात्र 나타났었다.

19) 종래의 종업원 중심에서 주주중심으로의 거버넌스의 이동, 은행 중심에서 주식시장 중심의 자본조달, 계열구조의 유연성, 주식상호보유하의 대기업의 창구였던 종래의 종합상사를 주식상호보유구조의 이완 속에서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재평가하는 등 변화된 환경하에서 일본기업시스템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행되면서 일본의 저출산·고령화가 거시경제와 가계행동에 미치는 분석에 관한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도 이미 출산율이 급속하게 하락하고 고령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중장기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축 방안과 안정적 운영에 관한 정책적 특징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유로 연금, 요양보험의 개혁시나리오 분석, 기업퇴직금 운용, 고령자, 여성, 청년층의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는 경제경영 분야의 중요한 흐름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경제경영 연구에서 1990년대 이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중장기적인 엔화 환율변동 요인, 미일 통상이슈, 한일의 기술발전요인 등 거시경제변동 요인과 관련된 분석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글로벌라이제이션 진전과 더불어 한일기업의 투자에 대한 연구, 한중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 연구, 한일 및 한중일 무역불균형에 대한 연구, 동아시아 경제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를 보면 일본 경제경영에 대한 연구는 이전과 달리 일본 국내경제에 한정되지 않고, 주변국과의 관계까지 확대됨으로써 다양한 영역으로 전문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 경제경영에서 일본의 거시경제, 금융, 환율, 통상관련 연구는 일본 전문가의 고유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구보다 많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경제는 미금융위기의 리먼쇼크로 인해 경기침체가 재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 분석이 많지 않은 것은 극복해야 과제로 생각할 수 있다. .

〈표 1-15〉 경제경영관련 주요학술지 논문발표 건수

주제	05	06	07	08	09	10	11	소계
일본거시경제, 동아시아경제	(3)	1(2)	1	0	2(2)	2(1)	1(1)	7(9)
통상, ODA원조	2(1)	(3)	(1)	1(2)	(2)	2(1)	(3)	5(13)
금융, 환율	(1)	0	1	(1)	1	1	(2)	3(4)
고령화	0	1	1 (1)	1(1)	2	0	1(1)	6(3)
규제개혁, 구조개혁	0	(2)	0	2	0	0	0	2(2)
한일 FTA	5(4)	1	8(3)	4(2)	2(2)	1	(4)	21(15)
지재권,개인정보,특허	0	0	2	0	1	0	0	3
한일기업비교	6(1)	5(2)	2(1)	2	0	5	4(1)	24(5)
일본기업시스템	2(1)	4(1)	2(1)	5(3)	1(3)	(4)	1(1)	15(14)
노무관계	4	2	0	2	3(2)	3(3)	1	15(5)
유통, 재무관리	2	1	2	1	1	1	2	10
경영, 기업회계	(1)	2	2	0	0	2	1 (1)	7(2)
해외투자	4	1(1)	0	1	0	1(1)	0	7(2)
마케팅	0	4	0	2	1	0	0	7
한일 해외투자	1(1)	1(1)	0	4	5(1)	0	3(4)	14(7)
일본경제, 기업사	1	1	0	(1)	1(2)	1	2(3)	6(6)
합계	27(13)	24(12)	21(7)	25(10)	20(14)	19(10)	16(21)	152(87)

주 1) 주요학술지는 韓日經濟論集(한일경상학회), 日本研究論叢(현대일본학회), 日本學報(한국일본학회) 일본연구(고려대 일본연구센터), 일본연구(외국어대 일본연구소), 일본공간(국민대 일본학연구소)

2) ()은 한일경상논집 외 5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수.

출처) 김도형(2012) 「국내에서의 일본경제 경영 연구동향」 한국일본연구단체 제1회 국제학술대회 『기획: 한국의 일본연구: 일본 사회, 정치, 경제』의 발표문 (2012.08.24) pp.112에서 인용한 표를 필자가 새롭게 구성하여 작성.

셋째 현실의 시기적인 쟁점과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는 어문학은 전문화와 다양성이 증가하였지만, 그 내용은 유학시기의 학문적인 특성으로부터 그다지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표 I-16>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본 문학 분야는 2005년도까지 거의 1000편에 달하도록 계속 양적인 팽창을 해왔다. 2007년도 이후가 되면 비교적 일정수의 논문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안정적 정체기’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만 하더라도 919편(연 평균 131편)의 고전 논문이 양산된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등재후보지의 학술지를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관 교수에 의하면 고전문학분야에서 이토록 많은 성과물이 솟아져 나온다는 것은 높이 평가될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한국의 일본연구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보고 있다.

<표 I-16> 어문학분야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연구논문 현황

연도	고전문학	근현대문학	총
2000	94	12	466
2001	92	135	552
2002	116	203	662
2003	137	183	783
2004	165	216	915
2005	152	235	1017
2006	128	237	954
2007	111	240	1019
2008	135	267	1106
2009	130	258	1088
2010	133	261	1131
2011	130	238	1123

주) 일본 문학관련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는 일본학보(한국일본학회), 일본어문학(한국일본어문학회), 일어일문학연구(일어일문학회), 일본문화학보(한국일본문화학회), 일본어문학(일본어문학회), 일본어학연구(한국일본어학회), 일본문화연구(동아시아일본학회), 일어일문학(대한일어일문학회), 일본어교육(한국일본어교육학회), 일본학연구(단국대 일본연구소), 일본언어문화(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일본근대학연구(아시아문제연구소), 일본연구(고려대 일본연구센터), 일본연구(중앙대 일본연구소)

출처) 최관(2012) 「한국의 일본연구: 고대문학, 한국일어일문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2012년 일본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어학, 고전, 근현대문학, 역사』에서의 발표문(2012.06.16) p.4에서 인용

최재철 교수에 의하면 현대문학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난다고 한다. 그는 일본문학에 대한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일본문학연구는 소오세키·아쿠타가와·오오가이(鷗外)·토오송(藤村)·다자이·카와바타 등에 관한 연구 논문이 많았다고 평가하고 있다²⁰⁾. 즉 국내 주요 6개 학회의 일본근대문학 논문 총 280편중, 위 상위 6명의 작가와 관련된 논문이 40%를 차지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 문학사에서 지명도가 높은 작가에 대한 연구가 많다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연구자가 특정부분에 집중한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말까지 소오세키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은 260 여 편 중 논문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집필자가

20) 최재철(2012) 「한국의 일본연구: 근현대문학」 한국일어일문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2012년 일본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어학, 고전, 근현대문학, 역사』에서의 발표문(2012.06.16) p.2-3. 특이한 점은 카와바타에 비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였던 오에겐자부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현재도 생존하고 있는 작가라는 점과 오에의 번역문과 같은 난해한 문장을 연구자가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최교수는 분석하고 있다.

130 여명에 이르고 있고, 단행본은 11권이다. 카와바타 연구는 일반논문이 150 여 편, 석사논문은 65 편으로, 작품론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오오가이 연구의 경우 연구논문은 50 여 편, 연구자는 20 명이 될 정도로 많다²¹⁾. 이처럼 몇 작가에 편중되어 문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유학 당시의 연구방법론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최재철 교수는 설명한다.

4. 결론: 일본연구의 과제

현재 한국의 일본연구의 발전은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일본 연구는 90년대의 비약적인 발전기를 거쳐 연구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문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는 1990년대의 연구자의 양적인 성장에 기인하는 부분이 많다. 1990년대 이후 일본과 미국 등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일본연구는 일본, 한국, 그리고 미국 등에서 다양한 연구방법이 도입되었고, 2000년대에 이르면 일본연구는 ‘전문영역의 다양화’로 발전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발전과 함께 연구환경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은 한국의 일본연구를 더욱더 전문화의 방향으로 이끌었다. 즉 대학의 인사시스템의 변화, 연구기관의 확대에 따른 연구의 특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과 경쟁시스템의 정비 등은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어문학 분야에서는 2000년 당시만하더라도 400편의 논문 발표가 2005년도에는 거의 1000편에 달하도록 계속 증가하였다. 2005년 이후가 되면 이강민 교수가 평가한 것처럼 일본연구는 대체적으로 ‘안정된 정체기’에 들어설 만큼 발전하였다.²²⁾

그렇지만, 한국의 일본연구의 발전 과정에서 문제점과 한계도 있다. 첫째 연구자의 연령대를 보면 30대와 40대가 줄어들고 있으며, 50대와 60대가 늘어나는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학계에 신진연구자들의 유입이 줄어들는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학계는 신진 연구자들을 어떻게 육성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둘째 일본 연구자 중 과반수 이상이 어문학에 편중되는 불균등 현상은 90년대 일단 그 경향이 약해졌지만, 2000년대 이후 재차 그런 경향이 강해졌다²³⁾. 이는 1980년 이후 한국 대학이 한국사회의 일본 수요에 대해 기능적인 전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어문학과를 집중으로 신설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1990년대에는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한 일본학과와 개설도 일부 나타났지만, 한국의 일본 교육이 균형을 찾기에는 늦어 버렸다. 이 결과 2000년대 이후 일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문학 분야만이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연구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21) 그렇지만 일본 문학연구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근대 문학 분야에서 타쿠보쿠 이외에도 하기와라 사쿠타로(萩原朔太郎)·타카무라 코오타로(高村光太郎)·미요시 타즈지(三好達治)·미야자와 겐지(宮澤賢治)·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 등의 시문학 관련 논문이 서서히 늘어가고 있는 다양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2) 이강민(2012) 「한국의 일본어학의 연구」 한국어일문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2012년 일본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어학, 고전, 근현대문학, 역사』에서의 발표문(2012.08.24.) p.6.

23) 이점에서 1980년대까지 한국의 일본연구는 일어일문학과 중심의 좁은 범위의 일본학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일반론적인 일본연구가 발전되기 보다는 특수성에 치우치는 문화론과 한일관계의 연구에 편중되었다.

셋째 한국의 일본연구는 전문화의 추세 속에서도 한국적인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학은 한일관계의 갈등에 따라 연구 동향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한일관계의 쟁점이 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와 독도문제에 치우친 나머지 새로운 한일관계의 변화에는 둔감한 측면이 있다. 또한 경제경영의 분야에서도 한국과 경제적인 연관성이 많은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일반적인 거시경제와 금융, 환율 등에 대한 연구가 적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게다가 어문학은 유학시기의 학문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한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자료와 정보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유학시기에 적합한 주제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간단히 연구 할당량(논문 수)을 채우게 된다. 예를 들면 고전문학에 대한 연구가 지나치게 많다든지, 근현대 문학에서도 몇몇 작가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한국의 일본 문학연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한국 일본학회가 현재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본연구자에 대한 교육의 방향을 재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일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어문학과나 혹은 국제대학원내의 일본 지역연구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의 일본 교육은 사회과학적이고 인문과학적이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본지역에 대한 지식만 암기한다든지, 또는 사회과학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어학이나 일본에 이해가 부족한 절름발이식 교육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어문학에 편중되지 않고 연계 전공을 확대하여 균형 잡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세대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분야의 일본연구자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일본연구가 자신만의 폐쇄적인 공간에 머물지 않고 타 학문과 경쟁하고 공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일본연구는 일본 특유의 논리와 방법에 매몰된 채 일반적인 학문의 이론이나 논리로 발전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1990년대이후 일본에서 유학한 연구자들이 압도적인 많은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그 예로 어문학 분야에서는 일본의 작가의 분석에만 한정되어 미국 또는 유럽의 작가와 비교하는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일본연구가 일본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론을 개발하여 타 학문과 경쟁하는 ‘열린 학문’의 자세가 요구된다.

셋째 새로운 내용과 방법론으로 일본을 소개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더욱더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정치나 경제경영분야에서는 일본연구의 대한 학문적인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시사적인 조류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대일관련 논의도 학문적인 담론의 토대 위에 서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 수준이 대중적인 여론과 쉽게 타협함으로써 기존의 논의를 되풀이 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는 학문의 관심이 대중적인 관심에 휩쓸리면서 학문적인 차원에서의 이론과 방법을 개발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계 내에서 일본에 대한 새로운 담론의 형성,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그리고 일본연구의 어젠더 개발 등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도형(2012) 「국내의 일본경제·경영연구동향」 한국일본연구단체 제1회 국제학술대회 『기획: 한국의 일본연구: 일본사회, 정치, 경제』의 발표문, 한국일본학회(2012. 08.24)
- 권혁건(1994) 「한국의 일본문학연구의 현상」 『일본학보』 (6)한국일어일문학회
-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2012) 『2012년 조사자료: 한국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데이터베이스)
- 진창수 편(2007) 『한국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한울. 아카데미
- 이강민(2002) 「한국의 일본어연구(1999-2000)」 『일본학보』 제52집, 한국일본학회
- 이강민(2003) 「한국의 일본어연구(2001-2002)」 『일본학보』 제55집, 한국일본학회
- 이강민(2005) 「한국의 일본어연구(2003-2004)」 『일본학보』 제64집, 한국일본학회
- 이강민(2008) 「한국의 일본어연구(2005-2006)」 『일본학보』 제74집, 한국일본학회
- 이강민(2012) 「한국의 일본어학의 연구」 한국일어일문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2012년 일본연구의현황과 과제: 일본어학, 고전, 근현대문학, 역사』에서의 발표문, 한국일어일문학회(2012.08.24)
- 이면우(2012) 「한국의 일본연구: 정치학 분야」 한국일본연구단체 제1회 국제학술대회 『기획: 한국의 일본연구: 일본사회, 정치, 경제』의 발표문, 한국일어일문학회(2012.08.24.)
- 이봉희(1988)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일본어학): 회고와 전망」 『일본학보』 제20집, 한국일본학회.
- 윤병남(2012) 「한국의 일본사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일어일문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2012년일본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어학, 고전, 근현대문학, 역사』에서의 발표문, 한국일어일문학회(2012. 06.16)
- 유옥희 외 「한국에서의 일본문학연구의 성과와 과제의 조명」 『2004년도 한국일본학회 산학학회 합동학술대회 Proceeding』 발표문, 한국일본학회(2004.11.4)
- 배준호(2007) 「국내 일본경제경영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일경상논집』 한일경상학회(2007.10)
- 최관(2012) 「한국의 일본연구: 고대문학」 한국일어일문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2012년 일본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어학, 고전, 근현대문학, 역사』에서의 발표문, 한국일어일문학회(2012.06.16)
- 최재철(2005) 「한국의 일본문학연구의 현황과 전망」 『논구일본문학』 (81), 리츠메이칸대학일본문학회(2005.2)
- 최재철(2012) 「한국의 일본연구: 근현대문학」 한국일어일문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2012년 일본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어학, 고전, 근현대문학, 역사』에서의 발표문, 한국일어일문학회(2012. 06.16)
- 한국일어일문학회 『한국의 일본어교육의 실태 - 일본어교육기관의 조사보고서 1998, 1999년』 (1999.02)
-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http://www.kaja.or.kr/>(검색일: 2012. 06.04)
-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http://www.kacjs.org/>(검색일: 2012.07.02)
- 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논집』 <http://www.kjem.or.kr/>(검색일: 2012.06.03)
-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일본공간』 <http://www.ijs.or.kr/>(검색일: 2012.5.05)
- 고려대 일본연구센터, 『일본연구』 <http://www.kujc.kr/>(검색일: 2012. 5.08)
- 한국외국어대학 일본연구소, 『일본연구』 <http://hufs-japan.com/> (검색일: 2012.6.08)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검색일: 2012. 6.04)
-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검색일: 2012. 6.03)
- 현대경제연구원, <http://hri.co.kr/>(검색일: 2012. 06.12)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http://kjc.or.kr/>(검색일: 2012. 06.15)

2012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 일본국제교류기금 /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엮은이 진창수

발행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펴낸곳 연이프린텍

발행일 2013년 10월 16일

Printede in Korea